

자연을 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11월 5일~12월 5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일원·14개 시·군 28개 전시공간서 개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선홍)는 '2021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11월 5일 온라인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월 5일까지 31일 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일원과 14개 시·군 28개 전시공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서예문화 보존과 진흥을 위해 마련된 국내 최초의 서예 특화 비엔날레로, 1997년부터 2년마다 열리고 있다.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인 '자연을 품다(回歸自然(회귀자연))'는 인류 문명사의 원류인 서예에 담긴 '자연'의 심오한 원리와 가치를 탐구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 20개국의 작가 3000여 명의 참가를 통한 서예장르의 확장 및 융합과 디지털 전시와 14개 시·군 전시 등 전시 방법의 다각화와 확대가 꼽힌다.

20대부터 9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지닌 한국, 중국의 전작가 1,000여 명이 한 글자씩 새긴 천자문 전작들을 감상하는 '천인천자(千人千字)전'과 서예와 도자, 조각의 협업전인 '융합서예전', 문자의 조형성과 시적 정서, 그림의 감수성이 조화를 이루는 '시·서·화전' 등은 국가와 장르를 넘나드는 서예의 확장력을 보여줄 것이다.

또 디지털 영상전시와 온라인 전시 등 시대 변화와 관객을 위한 맞춤형 전시 환경도 도입됐다.

개막식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송출될



'2021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메인 포스터.

예정이며, 해외에서 활동 중인 서예가들의 초청전인 '해외동포전시전'은 영상전시로 펼쳐진다. 아날로그의 시대의 유산인 서예와 디지털 첨단기술이 결합한 영상쇼(show) 디지털 영상서예전도 열린다.

더 많은 도민과 관람객이 서예를 즐길 수 있

도록 전시공간을 14개 시·군 전역과 도외로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전주와 군산, 남원에서는 특별행사 '어디엔들 서예가 없으랴'가 열리고, 14개 시·군에서는 해당 지역 작가의 서예 작품을 중심으로 전북 서예작품을 즐길 수 있는 '서예, 전북의 산하를 만나다'가 동시 개최된다. 비엔날레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외부 지역에서 감상할 수 있는 '비엔날레 서울전'도 마련됐다.

서예문화진흥과 저변 확대, 서예의 고장 전북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학술 행사, 특별전도 마련된다.

'탁본체험', '나도 서예가', '서예퍼즐놀이', '전북서예 유산의 길을 따라' 등 쉽고 재미있게 서예를 접해볼 수 있는 행사와 '국제서예학술대회', '국내학술논문공모' 등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강암 송성용전', '석전 황 옥전' 등 전북 출신의 서예 대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뿌리 깊은 전북 서예의 역사를 느끼는 특별전도 열린다.

이선홍 조직위원장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서예전으로, 세계적인 행사로 성장하고 있다"며, "서예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다른 국가, 다른 장르와의 융합, 교류를 통해 전북서예의 세계화, 관광자원을 실현하는 데 서예비엔날레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조선 최고 두 명필 합작 묘비 탁본 한자리서 만난다

오늘까지 완주군청 1층 대회의실에서 금석문 탁본 40여 점 전시

조선말기 추사 김정희(1786~1856)와 창암 이삼반(1770~1847)은 높은 조광진(1772~1840)과 함께 '조선 3대 명필'이라 불렸다.

추사와 창암 등 당대 최고의 두 명필이 합작으로 쓴 비문은 '정부인 광산김씨 묘비'로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의 능동마을에 있다. 비문의 전면은 추사 김정희가 예서로 썼으며, 후면은 창암 이삼반이 해서로 썼다.

추사 김정희와 창암 이삼반 선생이 쓴 '정부인 광산김씨 묘비'와 '김양성 묘비' 탁본 두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완주군은 역사적 발자취를 만날 수 있는 귀한 금석문 탁본 40여 점을 25일부터 군청 1층 대회의실에서 전시하고 있어 관람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금석문(金石文)'은 금속이나 석재 등에 새겨진 글이나 그림을 뜻한다.

'문화가 있는 날, 탁본에서 찾은 놀라운 역사

속 인맥' 전시는 28일까지 이어진다.

'정부인 광산김씨 묘비'는 전면의 추사 글씨가 중후한 균형 감각과 전체를 아우른 글자 형태가 매우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된다는 완주군의 설명이다. 비문은 정부인 광산김씨의 계와 부군 전주최씨 문충공의 후손 칭의의 행적 등을 담고 있다.

추사와 창암의 두 명필이 함께 쓴 또 다른 작품은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에 있는 '김양성 묘비'이다. 건립된 지 170여 년이 지났지만 조금도 마모된 부분이 없고 네모 모양의 큰 받침돌을 뜻하는 대석(臺石)이 매우 높아 비신(碑身)이 크지 않은 데도 웅장하게 보인다.

김양성의 가계와 행적을 장남 김항율이 짓고, 추사가 전면의 2자를 예서로, 창암이 후면을 해서로 각각 쓴 귀한 묘비이다. 상운리 능동마을의 정부인 광산김씨 묘비와 함께 추사와 창



암의 합작 작품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금석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외에도 화암사 중창비, 송공사 개창비, 송영구 신도비, 안심사 사적비를 비롯하여 황거중 신도비, 흥남립 묘비 탁본 작품들도 전시된다.

완주군은 27일 오전 11시부터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한 부채 만들기과 예코백 만들기 등 탁본 체험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다양한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도입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은환)은 즐겁게 일하면서 하나 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먼저, 퇴사하는 직원에 대한 예우다. 퇴사하는 직원은 마지막 근무일에 모든 직원이 중식 시간 등을 활용해 사무처 앞에서 환송을 한다. 26일, 퇴사 전 마지막 근무일인 이해인 주임은 장미꽃을 든 모든 직원의 환송을 받았다. 이해인 주임은 "재단 가족으로 함께 해온 지난 몇

년이 참 보람된다. 앞으로도 어디에 있던 재단과 태권도원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앞날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모님 등 신규 입사자 가족에 대해서 이사장 명의의 감사 편지를 발송하고 태권도원으로 초청해 자녀들이 근무할 곳을 돌아볼 수 있는 입사자 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입사자 가족 대상 프로그램은 11월 입사자부터 바로 적용한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을 활용한 '체육대회'와 '우리들이 직접 뽑은 우수사원' 등 다양한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애사심과 소속감을 키워 갈 계획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은환 이사장은 "우리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모두가 하나라는 원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의 관례와 격식을 벗어나 혁신적인 사내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다"며 "입사자의 가족도 그리고 퇴사자도 모두가 소중한 태권도진흥재단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립익산박물관, 11월 매주 토요일 문화행사 열린다

국립익산박물관(관장 최홍선)은 11월 6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박물관 야외공연장에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행사는 박물관과 해설이 함께하는 음악을 주제로 연주곡 및 백제문화에 대한 해설과 함께 다양한 장르의 연주와 음악 공연으로, 시민들과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백제왕도 익산의 역사인식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11월 6일 토요일 진행되는 첫 공연은 가수 김범룡과의 듀엣곡 '친구야'로 유명한 가수 박진광과 류스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 및 음악감독 조상익의 지휘와 콘서트가이드 송해진 교수의 해설로 △백학(모래시계ost), △파도(영웅시대ost), △친구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준비됐다.

13일은 소프라노 오현정, 테너 최재영, 플루

트 송해진교수, 조은비의 △Carmen Fantasy for 2flutes and piano, △사운드 오브 뮤직 ost, △넬 라판타지아 (가브리엘 오보에 영화 미션ost), △지금 이 순간 등이, 20일에는 with us와 솔더바, 아우라 밴드의 △옛사랑(이문세 노래), △너무아픈사랑은사람이아니었음을(김광석 노래), stay with me(모래시계 ost) 등이, 마지막 27일 공연에는 세계 각지의 유수의 음악원에서 수학하고 현재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뮤지션들로 이루어져 있는 '울뮤직앙상블'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곡들로 꾸민다.

국립익산박물관은 문화행사 기간 중 특별전 '백제의 빛, 미륵사 석등'을 전시해 현전하는 백제 석등 3점을 모두 한자리에 보여 우리나라 석등의 기원을 탐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안숙선 명창 무형문화재 공연

남원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예능보유자 안숙선 명창이 오는 29일 오후 6시 30분, 안숙선명창의 여정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안숙선 명창 무형문화재 공연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판소리 및 제자들과 함께하는 가야금병창, 무용, 아쟁산조 등 다양한 국악의 무대를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남원시민과 함께하는 공연인 만큼 안숙선 명창의 다양한 국악의 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안숙선 명창은 자연스러운 연기력과 뛰어난 가사 전달력, 풍부하고 매력적인 성음으로 국악계의 프라미너로 불리고 있다. 이번 공연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지난주 2021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정부 포상식에서 국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관문화훈장을 수상했으며, 사라져가는 우리의 멋과 흥인 판소리의 보존과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가을 밤 감미로운 재즈선율을 만나요"

RUST&조운성 'German Lieder' 문화공간 이룸서 내달 4일 진행

11월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감미로운 재즈선율이 문화공간 이룸에 울릴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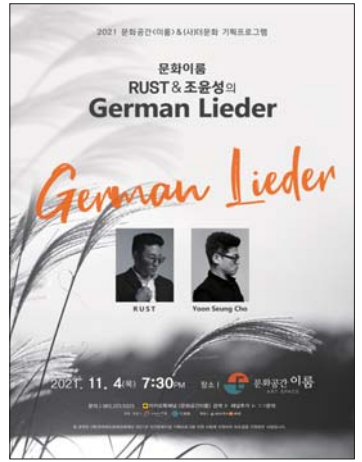
문화공간 이룸과 사단법인 더문화에서 공동 주관하는 문화이룸 RUST&조운성의 'German Lieder'는 오는 11월 4일 오후 7시 30분에 RUST와 조운성이 함께 가을밤 어울리는 독일 가곡들로 낭만적인 콘서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 바로 이 시점 대중들에게 좀 더 편하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을 표현하고 싶었고 고경관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고와 감정적 풍요를 나누고 이야기 함으로서 공감하고 함께 느끼고 힐링이 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번 콘서트는 국내에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독일가곡을 재즈로 편곡을 한 작품이다. 독일 가곡은 재미없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고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Brahms의 'Wie Melodien', Bach의 'Air On G String', Wagner의 'Tristan Und Isolde', Shim Su Bong의 'Only Love(사랑밖에 난 몰라)' 등 특색있고 다양한 독일 가곡들로 매력적인 라이브 운율을 즐길 수 있다.

아시아인으로 최초 '바르시탈 솔릴' 재즈 콩쿠르에 입상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운성은 작년 10월과 올해 6월에 문화공간 이룸에서 재즈 콘서트로 활약했고 'MUZE' 작사 작곡 프로듀서 Tricky와 Co-Producer 조운성과 프로듀싱 및 발매하여 완성도 높은 음악으로 호평을 받은 재즈 보컬 RUST도 올해 8월에 문화공간 이룸에서 재즈 콘서트 공연한 바가 있다.

RUST와 조운성의 호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두 콤비는 감미로운 선율의 음성과 세련된 멜로디로 다양한 공연에서 호흡을 맞춰 무대를 달구왔고 Brazilian, Pop, Jazz, R&B 그리고 더 넓은 영역으로 끊임없이 도



전하는 RUST는 오랜시간 피아니스트 조운성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앨범들을 꾸준히 준비해왔고 이번 공연을 통해 이러한 음악들을 관객과 함께 공유하려 한다. 기획 콘서트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무게감 있는 연주자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재즈 장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쉽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문화공간 이룸 이문정 이사장은 "선선한 가을밤의 매력을 더해줄 독일 가곡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되길 바란다"며 "가을밤 가곡들과 함께 매력적인 공연을 감상하면서 예술을 통한 일상 속 행복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연 관람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해 띄어 앉기, 공연장 소독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관람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문은 전화(063-223-5323)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한상봉 선생과 함께하는 '현판 만들기' 진행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11월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한상봉 선생과 함께하는 '현판 만들기'를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와 4시 열린 공간 온에서 두 차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립전주박물관 선비문화실에서 전시하고, 현재 온라인 전시해설에서 만나볼 수 있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쓴 화암사 '무량수각(無量壽閣) 현판'과 연계해 마련됐다.

국가무형문화재 제60호 낙죽장도장 한상봉 선생이 강사로 참여, 낙죽기술을 직접 배우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낙죽(烙竹)은 대나무 표면을 달군 쇠로 지져 여러 가지 무늬를 만드는 기술을 말하며, 주로 글씨나

산수, 구름 등을 새겨 넣는다.

이번 체험행사는 도안을 그린 후 인두로 태워가며 낙죽을 하는 전통방식을 활용해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축소판 미니 현판을 만들어 볼 수 있다. 행사는 무료로 진행하며, 총 36명(14시 18명/ 16시 18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은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예약할 수 있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지역민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 문화의 소중함과 장인 정신을 엿볼 수 있도록 마련한 문화체험이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은혜상사(주)

작업복 단체복, 여성기업, 안전화 안전용품, 사무용 가구 파티션, 앵글, 선반 제작, 명찰, 로고 각종 인쇄, 판촉물 기념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대표전화 063)227-4610, 팩스번호 063)227-4619, Naver 은혜상사(주), 전주 덕진구 기린대로 903, 1층